스포츠동아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sportsdonga.com 10판

151km 파워피처 장필준
삼성 마무리 후보 급부상

3면

프로야구 시범경기 결과 16일

SK	3	고척	0	넥센
삼성	8	수원	3	kt
LG	2	대전	8	한화
NC	1	광주	2	KIA
두산	8	사직	2	롯데

한화 폭풍질주 '마운드의 반란'

LG 꺾고 시범경기 6승1패 단독 1위…변화의 원동력은?

'독수리 군단'이 시범경기에서 단독 1위로 높이 날고 있다. 팀타율(0.277) 2위 등 공격지표들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올 시즌 순위 상승의 키포인트가 될 마운드가 안정감을 보여 고무적이다. 한화 선수들이 16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벌어진 LG와의 시범경기에서 8-2로 승리한 뒤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송신영·정재원·심수창 등 계투진 안정
김재영·정우람 무실점…팀 방어율 3위
장외포 로사리오·3안타 김태균 상승세

'독수리 군단'이 시범경기 단독 1위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한화는 16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시범경기' LG전에서 8-2로 승리했다. 외국인타자 윌린 로사리오는 8회 좌월 장외포로 첫 홈런을 신고했고, 김태균은 3안타 3타점으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타선이 장단 14안타로 8점을 쓸어담는 사이, 마운드는 2실점으로 역투했다. 시범경기 전적 6승1패(승률 0.857)로 단독 1위. 한화가 활기찬 플레이로 승리를 이어가자 팬들도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

●김성근 감독 "시범경기 순위? 의미 없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시범경기 1위에 대해 "의미 없다"며 "LG가 주전들을 다 빼고 경기를 해 LG 전력을 테스트할 수가 없다"고 웃었다. 실제로 그렇다. 시범경기에서 모든 팀은 승리가 최대 목표는 아니다. 이날 한화 역시 마찬가지. 전날 테이블세터로 나선 정근우와 이용규는 휴식을 취했다. 또 역대로 시범경기 순위와 정규시즌 순위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날 상대팀인 LG 양상문 감독은 "하위권에 있던 팀들은 팀 분위기상 시범경기라도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전력이 강한 팀이야 다르지만, 패배에 익숙한 팀은 시범경기에서부터 이기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이후 꼴찌만 5차례 하고, 지난해 선전했지만 6위에 그쳤던 한화로선 그래서 시범경기 승리도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결과보다 고무적인 것은 과정과 내용

싸워나가는 과정과 내용이 좋다. 팀타율(0.277) 2위 등 공격지표들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올 시즌 순위 상승의 키포인트가 될 마운드가 안정감을 보여 고무적이다. 이날도 선발 송은범(3.1이닝 2실점)에 이어 나온 송신영(2.1이닝)~송창현(0.1이닝)~정재원(1.1이닝)~심수창(1.2이닝) 등은 LG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2014년 역대 최악의 팀방어율 6.35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5.11로 신생팀 kt(5.56)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였다. 이런 점에서 시범경기 팀방어율 3.57로 3위에 올라있는 점이 눈길을 모은다.

여기에 신인 김재영이 그동안 2차례 등판에서 8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전력에 가세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4년 84억원에 FA(프리에이전트)로 영입한 정우람이 2경기 2.1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있는 점도 희망 요소다. 에이스 에스밀 로저스가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 등판하지 않고 안영명과 이태양 등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가세하면 한화 마운드는 한층 더 안정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성근 감독은 이날 승리 후 "김태균이 좋아진 것 같고, 로사리오는 이번 홈런을 계기로 감을 잡은 것 같다"며 중심타선의 폭발을 반겼다. 주포 김태균은 "이제 페이스를 올릴 시기가 와서 집중해서 하고 있다"며 "팀이 이기면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정규시즌이 돼서도 좋은 분위기에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시범경기 관련기사 3·4·13면

대전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우리은행 통합 4연패 박혜진 어깨에 달렸다

위성우 감독, 챔프전 키플레이어 지목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팀 우리은행은 통합 4연패에 도전한다. 우리은행이 챔피언 결정전 상대 KEB하나은행과의 전력 비교에서 가장 뚜렷하게 앞서는 부분은 바로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가드진이다. 그 중에서도 가드 박혜진(26)은 KEB하나은행에 가장 위협적 존재다. 20대 중반의 박혜진(사진)은 위성우 감독을 만나 우승을 경험하면서 어지간한 베테랑 선수 못지않은 노련미까지 갖췄다.

박혜진은 지난 두 시즌 연속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을 정도로 리그 정상급의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지만, 올 시즌 초반에는 공격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 슬럼프를 겪었다. 박혜진은 공격 대신 수비와 리바운드 등 궂은일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것이 독이 되고 말았다. 팀 성적이 좋은 데다 임영희(36), 양지희(32) 등 기량 좋은 선배들에게 공격을 맡겨놓으면서 박혜진 특유의 공격성을 잃은 것이다.

위 감독은 정규리그 중반부터 박혜진을 질책하면서 다시 자기주도적인 공격성을 높이도록 유도했고, 말미가 되어서야 비로소 박혜진의 공격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박혜진은 "감독님은 늘 내 플레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을 살려주라고 하셨는데, 언니들이 힘든 걸 알면서도 '언니들이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 정규리그 후반에 공격 횟수를 늘리면서 내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첼시 리(27)-버니스 모스비(32)가 버티는 포스트에 비해 가드진의 무게감이 떨어진다. 박혜진-이승아(24)-이은혜(27)로 구성된 리그 정상급 가드진을 보유한 우리은행은 이를 활용해 KEB하나은행을 공략할 계획이다. 위 감독은 "이번 챔프전은 박혜진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경기력으로 본인의 역할을 해주느냐에 통합 4연패가 달렸다. 챔프전을 준비하는 동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며 박혜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태양의 후예' 송중기 "한류의 일부 돼 영광"

송혜교 "한국드라마 힘 보여줘" 뿌듯

한달 전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지난달 22일 열린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발표회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약 3주일 후 다시 마련한 자리에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16일 서울 논현동의 한 행사장에서 열린 '태양의 후예' 기자간담회에 나선 송중기(사진) 송혜교 진구 김지원은 사전제작 작품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완전히 떨쳐낸 모습이었다. 송중기와 진구는 서로를 "유시진" "서상사"로 불렀고, '~말입니다'란 극중 화법으로 분위기도 띄웠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송중기는 "드라마는 하는데, 촬영을 하지 않아 어색하다"며 웃었다. 송혜교도 "수·목요일을 기다린다. '구·원커플'(진구·김지원)을 현장에서 잘 못 봐 TV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진구와 김지원도 "지루하지 않게 보고 있다", "재방송까지 챙겨보고 있다"며 시청자와 다르지 않음을 드러냈다.

이들은 드라마 인기요인으로 "빠른 전개와 로맨틱코미디 요소"를 꼽으면서 원작인 김원석 작가의 '국경 없는 의사회'에 공을 돌렸다. 송중기는 "군인과 의사와의 관계가 신선하기도 하지만 원작의 인류애가 클 것"이라고 했다. 송혜교는 "가벼울 땐 가볍고, 무거울 땐 확실히 무거운 밸런스가 좋다"고 설명했다.

송혜교는 세 살 아래 송중기를 두고 "굉장히 어린 척 했는데, 대화해보면 나 어릴 때 유행했던 것을 다 알고 있더라. 촬영장에서 '노인네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송중기가 오히려 자주 아파, 몸 상태는 나보다 더 나이 먹은 것 같다"며 웃었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한류도 부활하는 분위기다. 일본에 회당 10만 달러, 총 20억원에 판권을 수출했다. 4월6일에는 홍콩 Viu TV 개국에 맞춰 해외에서 TV로는 처음 방영을 시작한다. 동시방송한 중국 동영상사이트 아이치이에서는 누적 조회수 6억 건을 돌파했다.

송중기는 "영광이다. 선배, 관계자들 덕분에 한류라는 공간의 일부가 됐다"고 했고, 송혜교는 "한국드라마의 힘을 보여준 것 같아 기분 좋다"며 뿌듯해했다.

▶진구도 떴다 11면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